생애주기프로그램

# 모두 다 분명히 잘 될 거야!
## (밝은 빛을 품은 함백산)

| | |
|---|---|
| 활동장소 | 태백산국립공원 함백산일원 |
| 소요시간 | 60분 |
| 참가대상 | 청년기(30대~40대) |
| 참가인원 | 20명 |
| 운영자 |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 |

| | |
|---|---|
| **활동목표** | • 함백산의 자연적, 역사·문화적 가치를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다.<br>• 대상마다 산에 오르는 의미를 고민해보고 꿈의 키워드 말하기를 할 수 있다. |
| **준비물** | • 백두대간 지도, 기념품 |
| **유의사항** | • 지정된 탐방로만으로 출입하기 |

| 단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도입**<br>**(마음_노크)** | • **여는 말**<br>– 프로그램 운영 취지 및 해설사 소개<br>– 안전체조 및 주의사항 안내<br>• **등산은 왜 할까?**<br>– 중장년층의 대표 취미 : 등산<br>– 대상의 사람들은 산에 왜 올까? | 5분 |
| **전개**<br>**(마음_샤워)** | • **태백산국립공원에서의 함백산**<br>– 민족의 영산, 태백산<br>– 태백산 최고봉 '함백산'<br>• **백두대간에서의 함백산**<br>– 백두대간의 의미<br>– 태백산국립공원의 백두대간<br>• **함백산의 가치**<br>– 자연 : 백두대간의 중심<br>– 역사 : 국내 유수의 탄전지대<br>– 문화 : 정암사의 수마노탑 | 50분 |
| **마무리**<br>**(마음_울림)** | • **밝은 빛을 품은 함백산: 모두 다 분명히 잘 될거야!**<br>– 함백산 이름의 의미와의 연결<br>– 키워드로 보는 나의 오늘<br>– 산과 대상 연결하기 | 5분 |

시나리오

## 여는 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디즈니 영화인 '알라딘'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SPEECHLESS' 노래에 푹 빠져 있어요. 영화를 보지 않고 노래만 들어도 어릴 적 봤던 알라딘 애니메이션과 연결되어 스토리가 상상되더라요. 해설이란 보지 않은 영화의 ost를 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함백산, 태백산, 국립공원, 나아가 자연에 이를 계기로 흥미를 가지게 되신다면 너무 뻔한 클리셰죠. 그래서 전 보다 진부한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의 오후를 노래할 자스민이 아닌 꽃받침 해설사 천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갑자기 차장님께 연락을 받아서 해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제가 사회생활 중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사춘기에요. 제가 국립공원에 입사해 해설을 한 지는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환경부장관상도 받고 환경부 인증프로그램이라 하여 저보다 연륜이 높은 해설사나 탐방 담당자도 힘들다 하는 프로그램을 벌써 3개 지필했죠. 어, 박수 받으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글로벌리더십 연수원을 소개로 오시는 청년분들, 청년 맞으시죠? 30대에서 40대까지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에선 청년으로 봅니다. 청년 맞으시죠? 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포도 그림에 포도알 스티커 채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거나 숙제를 잘하면 주시던 스티커 한 장이 참 소중했었죠. 가시는 길 내내 가장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께 정상에 올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 기준은 중간 중간 나누어 드리는 스티커로 드릴 텐데 스티커 한 장으로 어린 날을 회상하실 수 있다면 해설의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함백산으로 떠나기 전에!

## 등산은 왜 할까?

혹시 장기하의 노래 '등산은 왜 할까?'란 노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최근에 접한 노래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 늘 산에서 근무하면서 '등산은 왜 할까?'란 고민은 늘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 혹은 재미를 주는 해설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대표 취미는 몇 년째 '등산'입니다. 그들은 왜 산에 올까요? 스티커를 받을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가 어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떠한 과정으

로 여기에 와 있고 이 산 정상에 올라 어떠한 생각을 하면 좋을지 한 번 고민하면서 숲의 풍광을 봐주세요. 함백산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조금더 걸어 그늘이 보이면 이야기 해드릴게요! 출발해볼까요?

## 태백산국립공원에서의 함백산

네, 이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한다더니 너무 이유모를 이야기만 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서 '국립공원에 가는데 해설사가 오니,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곳은 태백산국립공원의 함백산입니다. 태백산은 전국 국립공원 중 지정 연도로 보면 가장 늦게 된 산이지만 그 타이틀은 '민족의 영산'으로 매우 거창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산을 찾는 주된 이유가 다른 산처럼 건강증진, 친목도모의 이유보다도 '소망을 비는 산'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태백산 가보셨나요? 태백산 정상부에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 3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 '천제단'이라 합니다. 매년 10월 3일 개천절이 되면 태백산 천제단 위원회가 주최하고 태백문화원이 주관하여 태백시장을 시작으로 정치하는 분들까지 모두 산에 올라 제를 지냅니다. 그 기원은 서기 138년 신라의 일성왕이 친히 이곳까지 와서 나라의 안녕을 위한 제를 지냈다는 기록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전엔 흔히 백두산으로 알고 있는 단군왕검의 신화가 백두산이 아닌 태백산으로 '단군신화'를 이야기하는 산입니다.

'그렇다면 태백산에 가야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함백산은 물리적 높이 기준 태백산의 최고봉입니다. 1572.9m로 가장 높은 봉우리죠. 올라가면 탁 트인 경관과 태백시를 발아래 놓을 수 있죠.

우리가 가는 함백산의 ost의 첫 소절이었습니다.

## 백두대간에서의 함백산

시원시원하게 뻗은 나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날씨가 제법 더운데 모두 괜찮으세요? 숲은 나무와 풀, 덩굴들이 한데 엉킨 곳이란 의미입니다. 바로 그 숲을 거닐고 계시죠. 지금 걷고 계신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큰 축인 백두대간을 걷고 계십니다.

(백두대간 사진) 우리나라는 산지 60%이상의 동고서저의 반도형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백두대간이란 한반도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산줄기를 말합니다. 그 길이가 6.25전쟁, 가슴 아픈 한국전쟁의 숫자를 담은 '1,625km'입니다. 그런데 이 산들은 홀로 서 있지 않고 거대한 산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얼핏 보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하나, 자연 스스로를 품지만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이 전국각지에서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것을 느끼고 치유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의 중심이자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합니다. 그 멋진 풍광은 정상부에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 함백산의 가치

이렇듯, 함백산의 백두대간의 중심으로 한반도 생태통로를 잇는 생태계의 터널이자, 60년대~80년대까지 주된 사업이었던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중심지이죠. 우리가 보는 땅 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의 자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땅 속은 마치 개미집처럼 이루어져있습니다. 곳곳에 훼손된 곳을 복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룡소지구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물이 돌을 녹여 천연의 동굴을 만들었지만 이곳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인공의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란 노래도 참 좋아하는데요. 사람 그 글자를 줄여보면 바로 '삶'이죠. 사람 그자체가 삶이고 사람의 모든 순간이 삶이죠. 그래서 이곳에 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부여한 가치,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떠나 이곳을 찾는 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죠.

## 밝은 빛을 품은 함백산 : 모두 다 분명히 잘 될거야!

네, 드디어 함백산의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이런 저런 말보다도 모두가 먼저 둘러보세요. 함백산을 중심으로 동쪽엔 KBS중계소가 있고 여러분의 뒤편인 북쪽으로 보이는 산의 물결이 바로 백두대간입니다. 북쪽엔 검룡소지구가 있고요. 그 위론 오대산, 설악산이 있습니다. 함백산의 남쪽엔 태백산이 있고 봄에는 철쭉, 여름엔 푸르른 녹음, 가을엔 멀리 보이는 단풍, 겨울엔 눈꽃까지 1시간 산행이면 사계절 내내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오늘 날씨 참 화창하네요. 함백산 그 이름을 풀어보면 한백산, 한밝뫼라 하여 단군신화가 연결된 이야기가 있지만 단순히 한자풀이만 해보아도 다 함, 흰 백로, 클 태, 흰 백을 쓰는 태백산과 의미론 상통합니다. 크게 밝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종교를 떠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할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스티커 받으신 분 중 몇 개 받으셨죠? 네, 이 분이 가장 이곳까지 오면서

저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준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손수건을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급작스레 준비한 해설이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깜짝 말씀은 손수건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더운 여름날 요긴하게 쓰시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선 박수 받아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손등이나 얼굴에 붙인 스티커의 개수가 뒤늦게 받을 선물의 차이를 만들지 않게 해서 가장 열심히 한 분은 조금 언짢으실까요?
전 삶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하루엔 누군가의 그 날엔 기쁨의 스티커, 슬픔의 스티커, 분노의 스티커가 붙여 진다해도 우리는 늘 같은 시간을 매일 아침 눈뜨며 선물 받습니다. 제가 드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기도 하고 목을 감싸기도 하고 머리에 둘러 두건을 만들수도 있고 더 다양하게 쓰실 수도 있죠. 우리의 시간도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늘 뛸 순 없습니다. 그러나 늘 지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시간이란 똑같은 선물을 다른 스티커를 받으며 산을 오르는 순간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처럼 평지도 오르막도 내리막도 정상부도 있는 다이나믹한 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서있나요?
저의 오늘 해설 제목은 밝은 빛을 품은 함백산, 모두 다 분명히 잘될거야! 였습니다. 뭐, 꿈보단 해몽이긴 하지만 30~40대 어느 여름날, 태백에서 연수차 들른 그 날. 태백의 어느 해설사가 이 함백산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이 산이 존재했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밝게 빛날 산, 모두 다 분명히 잘될거야 라고 하더라. '지금 당신이 막막한 것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밤이 아니라 해가 뜨기 직전인 여명이다. 내 삶의 여명에 가슴 답답해 연수에 갔었는데, 그 해설사가 당신은 분명히 찬란한 태양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거만 기억해주신다면 어젯밤 잠못자고 오늘 오전 내내 준비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